



메시야 예언성취의 성격과 의미

- 마 2장에 나타난 해석학적 전제와 예언 성취의 성격연구 -
- A Study on the Hermeneutical Assumptions of
Matthew and the Nature of the Fulfillment
in Matthew 2:5-6 and 2:23 -

류기철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목 차

1. 들어가는 말 ■ 42
2. 본문 비교 - 마태복음 2:6, 미가서 5:2(LXX-70인역)와 미가서 5:1(MT-미소라본문) ■ 43
 - 2.1. 구약 본문에 나타난 예언의 컨텍스트 ■ 45
 - 2.2. 신약 본문의 배경 ■ 46
 - 2.3. 신약에 나타난 구약의 예언 성취를 뒷받침 하는 해석학적 원리와 성격 분석 ■ 48
3. 본문 비교 - 마태복음 2:23과 이사야서 11:1 ■ 52
 - 3.1. 구약 컨텍스트 ■ 56
 - 3.2. 신약의 컨텍스트 ■ 58
 - 3.3. 해석학적 원리와 성격 분석 ■ 59
4. 결론 ■ 62

요약

메시야 예언성취의 성격과 의미

- 마 2장에 나타난 해석학적 전제와 예언 성취의 성격연구

이 논문은 마태가 2:5-6절과(베들레헴에 대한 예언) 2:23절(나사렛에 대한 예언)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논란이 학자들간에 있으나 약간의 변형이라는 형식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속한 상황과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테마가 일치함을 보여준다. 먼저 두 본문 구절에 대한 신약의 본문과 구약의 본문을 해석하고 비교할 것이며 둘째 구약본문의 배경을 조사하고 셋째 신약 본문의 배경을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태가 증거하는 신약에서의 구약의 예언 성취를 뒷받침 하는 해석학적 원리와 그 성격을 논할 것이다. 또한 구약의 예언이 최종적인 성취인지(in totality) 혹은 본질적인 성취(in essence)인지를 간단하게 다루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마태는 결국 구약의 컨텍스트에 충실했으며 예수의 탄생과 성장 배경을 통해 메시야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함을 통해 나타나는 그의 해석학적 전제들과 예언 성취의 성격을 논하고자 한다.

주요어

마태의 구약인용, 마태복음 2:5-6, 마태복음 2:23, 예언과 성취, 베들레헴, 나사렛

*A Study on the
Hermeneutical Assumptions of
Matthew and the Nature
of the Fulfillment
in Matthew 2:5-6 and 2:23*

Abstract

A Study on the Hermeneutical Assumptions of Matthew and the Nature of the Fulfillment in Matthew 2:5-6 and 2:23

Prof. Ki-Cheol Yu

This brief examination of the passages Mt 2:5-6, 2:23 is an attempt to see how the New Testament and the Old Testament are related in Matthew's gospel, each verse dealing with the Visit of Magi and the Return to Nazareth respectively. We will deal with the comparisons between the NT and OT passages in view. Secondly we will discuss the contexts within which the two passages in question are located with respect to the OT. This paper tries to see the legitimacy of Mtt's using the OT quotes/allusions on the basis of the context and the theme, and will determine its hermeneutical assumptions of Matthew and the nature of the fulfillment through the birth and infancy narrative of Jesus Christ.

Keywords

Matthew's Use of the O.T., Matthew 2:5-6, Matthew 2:23,
Promise and Fulfillment, Bethlehem, Nazareth

1. 들어가는 말

동방박사의 아기예수 방문과 예수의 나사렛으로 돌아감에 대한 마태의 구약 예언 성취가 어떻게 표현되고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마태의 구약 인용에 대한 방식에 대한 문제에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으나 조금씩 다른 각도로 보고 있다.¹⁾ 이 논문을 통해서 마태가 구약의 예언을 2:5-6과 2:23에서 인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가 속한 상황과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에 기초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태가 가지고 있던 해석학적 전제와 예언 성취의 성격을 모색하고자 한다.

* 류기철 교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산 범천교회(고신)에서 자라다가 1986년 미국 LA로 이민을 갔다. 서부 SFC 창립활동에 몇 년 간 봉사하다가 신학 공부를 위해 미시간 주 칼빈대에서 철학전공, 그후 칼빈 신대원에서 M.Div.와 신약학 Th.M.과정을 마쳤다. 졸업 후 미국 개혁교단에서, 특히 벌코프를 배출한 First Allendale 개혁 교회에서 화란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였다. 120년 보수전통의 Seventh Reformed 교회를 거쳐 프랑스 파리 풍네프 한인교회 사역, 그리고 성경적 상담학 박사과정 중 2년 전부터 부르심을 받고 현재 고신대 기독교교육과 교수로 섬기고 있다.

1) 마태복음 2:5-6절에 대한 구약 인용과정에서 미가 5:2절을 사무엘하 5:2절로 바꾼 것으로 보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Ulrich Luz, *Matthew 1-7*, trans. W. C. Linss, (Minneapolis: Augsburg, 1989) p. 130. Davies and Allison, *Matthew*, 1:243; Raymond Brown, *The Birth of the Messiah* (New York: Doubleday, 1977), p. 184; R. T. France, *Matthew: Evangelist and Teacher* (Grand Rapids: Zondervan, 1989), p. 173. 혹은 창세기 49:10, 사무엘하 5:2, 그리고 미가 5:2을 함께 엮어서 해석한 것이라고 보는 이는 아래와 같다. Homer Heater, "Matthew 2:6 and Its Old Testament Sources", JETS 26(1983), pp. 395-397. 미가 5:2(5:1, MT/LXX)에 대해 메시야적인 해석으로 보는 이는 A.J. Petrotta, "A Closer Look at Matthew 2:6 and Its Old Testament Sources", JETS 28(1985), pp. 47-52. 좀 더 구체적으로 인용방식에 대한 논문은 아래와 같다. M. M. Thompson, *Clothed with Christ: The Example and Teaching of Jesus in Romans 12:1-15:13* (JSNTSup 5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p. 30; C. D. Stanley, *Paul and the Language of Scripture: Citation Technique in the Pauline Epistles and Contemporary Litera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 28, 37. 채영삼, "마태복음 2:6의 구약 인용과 마태의 복자기독론", 『신약연구』 8(2009), 5-37. 채영삼은 마태의 구약 인용에 대한 해석이 가져오는 기독론적 함의를 다루고 있다.

2. 본문 비교

- 마태복음 2:6, 미가서 5:2(LXX-70인역)와 미가서 5:1(MT-맛소라본문)

맛소라본문 (5:1): “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수많은 유다 [족속]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오리로다.”

70인역: “또 에브라다 족속(house)인 베들레헴은 네가 수많은 유대[족속]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오리로다.”

마태복음:

*Kai σὺ Βηθλέεμ, γη Ἰούδα, οὐδαμῶς ἐλακίστη εἰ ἐν τοῖς ἡγεμόσιν Ἰούδα ἐκ σοῦ γὰρ ἐξελεύσεται ἡγούμενος, ὅστις ποιει αὐτὸν λαόν μου τὸν Ἰσραήλ.*²⁾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예언은 70인역이나 맛소라 본문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³⁾ 아래와 같은 차이점을 지

2) Nestle, E.(1997, c1982). Nestle-Aland 27th Edition Greek New Testament. Includes the Nestle-Aland 27/UBS 4 Greek New Testament with morphology, lemmas, and glosses.; The Greek New Testament copyright 1998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Mt 2:6). Oak Harbor: Logos Research Systems.

3) 구약 맛소라 본문에 대한 임의적인 해석으로서 미드라쉬에 가까운 해석으로 보는 학자는 K. Stendahl, *The School of St. Matthew and Its Use of the Old Testament* (Lund: Gleerup, 1968), p. 166.

적할 수 있다. 마태의 “유대 땅”은 70인역의 “에브라다 족속”을 대신하고 있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의미의 이탈은 아니며 대략적인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⁵⁾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οὐδαμῶς*(전혀 아닌)이다. 마태는 베들레헴의 작음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를 첨가함으로 마태는 미가 선지의 예언을 상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관점보다는 여기서 마태는 자신의 해석을 위해 첨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왜냐면 *γὰρ*를 삽입함으로서 해석의 의미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⁶⁾: 구약의 예언에서 표기된 것처럼 “네가 수많은 유다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 니이다”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 이 구절은 근본적으로 베들레헴은 위대한 곳인데 그 이유는 위대한 지도자의 출생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고 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의 “Ἰησοῦς Ἰουδαῖος”(유대의 지도자)는 70인역과 맞소라 본문의 “수많은 유대[족속]”을 대치하고 있다. 로버트 건드리(Robert Gundry)에 의하면 마태는 히브리어 자음 본문

4) 레이먼드 브라운(Brown)은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마태의 목적은 아마도 신학적이라고 본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유대’라고 하는 이름은 수신자들에게 메시야가 유다에서 나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것이기 때문이다.(1:1, 2).” Raymond E. Brown, *The Birth of Messiah*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77), p. 185. Donald Hagner도 또한 브라운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Donald A. Hagner, *WBC: Matthew 1-13* (Dallas: Word Books, 1993), p. 29. 를 참조하라.

5) 다윗의 아버지는 사무엘상 17:12절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라고 기록하고 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 위치해 있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명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지명이기는 하나 본문의 의미를 전달하는 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 Leon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Grand Rapids: Erdmans Publishing Co., 1992) p. 39를 참조하라.

6) B. Lindars, *New Testament Apologetics* (London: SCM Press LTD, 1961), p. 193.

에 다른 모음을 첨가함으로 “수많은” 대신에 “다스리는 자”로 표기한 것이다.⁷⁾ 따라서 마태는 다른 어떤 유대의 도시(특별히 예루살렘)보다도 베들레헴 출신의 다스리는 자가 더 위대하다고 나타내고 있다. 왜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야가 베들레헴 출신의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이다. 바로 마태가 이 본문을 통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위대함과 메시야 출생지로서의 유일한 장소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2.1. 구약 본문에 나타난 예언의 컨텍스트

미가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술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멸을 물고 오실 것이며 그러한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고통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4장과 그 이후의 내용은 멸망의 예언에서 소망의 예언으로 바뀌게 된다. 4장 1-4절에서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야훼 하나님은 우주적인 통치를 펼치실 것을 예언하신다. 6-7절은 흩어졌던 남은 자들을 야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한다. 8절부터 5장 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침략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임을 보여준다. 5장 2절에서 5절 상반절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 5장

7) Robert H. Gundry, *Matthew, A Commentary on His Literary and Theological Art*, (Grand Rapids: Erdmans Publishing Co., 1982), p. 29. 건드리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마태는 마치 예루살렘이 의인화 되어왔던 것 처럼(너, 예루살렘이) ‘수많은 족속’을 의인화함으로써 다윗 왕조의 자손 중에 그 어떤 자손 보다도 그리스도의 타월성을 증거 하려고 한다.” Ibid., p. 29.

5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는 앗수르가 폐망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방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대신에 우상과 군사력에 의존했던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될 것이다.⁸⁾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가서 5:2-5a에서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다스리는 왕은 약하고 수치스러운 왕이라는 사실이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새로운 왕이 태어나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가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마을에서 그 위대한 왕 다윗이 탄생하게 되었는가를 미가 선지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⁹⁾ 그 전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지만 이제야 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게 될 것을 미가 선지는 내다보고 있다. 이 새로운 역사의 장은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오심으로 현실화 되는 것인데, “베들레헴아...네께서”라는 본문의 표현을 통해서 그 새로운 왕은 다윗의 자손임을 확증해 주고 있다. 이것이 미가서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2.2. 신약 본문의 배경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다룬 뒤 2장에서는 지형적인 컨텍스트에 따라서 시간순서대로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¹⁰⁾ 1장에서는 “누구인가”的 정체성의 문제를 다룬 반면 2장에

8) Ralph L. Smith, *WBC: Micha-Malachi vol. 32* (Waco: Word Books, 1984), pp. 46-48.

9) 베들레헴과 나사렛이라고 하는 두 마을의 작고 초라하고 무명의 마을이라는 사실이 두 인용 본문들을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기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힘과 영광스러운 성취가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그리고 라마로 마지막으로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

서는 “어디서”의 장소 문제를 다루고 있다. 논제의 핵심에 있는 마태복음 2:5-6절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고 있다. 동방박사들은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새로 탄생한 어린 왕을 찾을 수 있는 줄로 알았을 것이다. 동방박사들의 행적에 대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5-6절이 가장 중심적인 핵심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카이애스틱 조직(Chiastic Structure)임을 발견하게 된다.¹¹⁾

- A. 1-2절: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came).
- B. 3-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called)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asked).
- C. 5-6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 B'. 7-8절: 혀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called)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 A'. 9절: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갈새(went).

2장 처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 즉, 머나먼 곳에서 새로 탄생한 왕을 찾기 위해서 온 박사들의 놀라운 등장으로 우선 5-6절에 예언된 메시아 탄생지의 중요성이 가중된다. 박사들은 분명 이방인들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야 말로 가장 먼저 새로 태어나신 왕에게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기 예수가 어디서 정확히 태어날 것인지는 그들도 알지 못했다. 그들이 결국 도착해야 할 마을은 처음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과 율법사들은

는 동네로 이동 경로를 다루고 있다.

11) George M. S. Prabhu S. J., *The Formula Quotations in the Infancy Narrative of Matthew: An Enquiry into the Tradition History of Mt 1-2*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6), p. 267.

그 탄생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를 거부하였다. 베들레헴을 찾아 태어난 아기 예수를 경배 하려 온 이방인들과 베들레헴이라는 답을 알고 있었으나 경배하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 간의 정반대의 반응을 통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토록 중요한가? 건드리(Gundry)가 그 답을 제시한다. “마태에게 있어서는 미가 선지자 당시 중요하지 않았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며 메시아인 아기 예수의 탄생지로 변화되는 것이다.”¹²⁾ 적절한 견해이다. 마태는 가장 초라함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로 베들레헴의 중요성이 상승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γάρ'(왜냐하면)를 삽입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윗의 후손이며 유다의 왕이며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그곳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을 목양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마태복음 2:1-12절의 초점은 자연히 5-6절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인도자에게 모아지는 것이다.

2.3. 신약에 나타난 구약의 예언 성취를 뒷받침 하는 해석 학적 원리와 성격 분석

중요한 질문은 마태가 맷소라 본문(MT)과 70인역(LXX)을 어떤 방식으로 인용 했는가이다. 올바른 인용방법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비록 마태가 약간의 변화는 주고 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는 주제도

같으며, 그리고 미가서의 배경¹³⁾과 마태의 배경은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물론 미가서 5장의 컨텍스트는 이스라엘의 부패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주변 나라들, 특히 앗수르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미가서에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적들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할 것이며 그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 중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깨끗하게 정결해 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 따라서 컨텍스트의 내용을 줄여 표현하자면 부패와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신약의 배경을 살펴볼 때도 이스라엘 또한 로마의 압제 하에 있었다. 그들의 종교생활도 그들의 지도자들도 타락의 길에 빠져 있었다. 미가선지의 상황도 동일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소망하고 고대하고 있던 역사였다.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마태 시대의 백성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다. 역사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그 배경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었다.

마태가 미가서 5:2절을 인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주제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부패하였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거나 다스리거나 혹은 원수들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지도자들이었다. 이러한 모든 임무를 감당할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에 대한 절실한 필요를 모두가 느끼고 있던 시대였다. 이 지도자는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12) Gundry, *Commentary*, p. 29.

13) 미가는 5장 3절에서 “그리므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를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산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의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배경과 같은 컨텍스트를 보여주고 있다.

리를 위해 영원히 다스릴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태복음 본문의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인데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던 이미지를 상기시킨다. 물론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처럼 보살폈다. 또한 다윗의 출생자는 다름 아닌 베들레헴이었다. 따라서 다윗왕의 성품을 가진 다윗 왕의 자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에 합당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그리고 참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이었다. 마태에 의하면 이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언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였던 것이다. 그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필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약속 그대로 그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예언의 성취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과 주제를 살펴볼 때 마태는 미가서 5:2절을 인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맞추어진 것이다. 왜냐면 아기 예수야 말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그리고 참된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다면 마태가 미가서를 인용하는 과정에 나타난 그의 기본전제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한다. 마태가 미가서를 인용하는 것은 미가서 본문 속에 단순히 예수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proof text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메시야가 이 세계를 다스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마태는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메시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에서 구하실 것이며 정결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온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릴 자인 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종말론

적 구속(eschatological salvation)을 주목하게 한다. 간단히 말해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소망은 메시야 바로 그 분이었다. 이러한 종말론적 성취가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취가 최종적인 성취인가? 이러한 성취가 완전한(in totality) 성취인가 아니면 본질적인(in essence) 면에서 만의 성취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성취되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의 인용과 그 적용은 완전한 성취인 것처럼 직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점진적인 성취나 더 심오하고 깊은 성취(deeper fulfillment)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뜻은 명료하다. 즉 메시야는 예수가 태어나기로 이미 예언된 바로 그 장소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고, 메시야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로서 인도할 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약 예언의 성취가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메시야의 목자로서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시작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메시야의 다스리심은 세상 끝날 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위에서 던진 질문에 답을 구해 보자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예언 성취는 본질적인(in essence) 면에서 만의 성취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는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구약의 컨텍스트에 충실하려 했으며 또한 그리스도가 구약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 역사의 중심에 계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전제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3. 본문 비교

- 마태복음 2:23과 이사야서 11:1

예수가 살게 되었던 곳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장소가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마태의 선언은 오랫동안 학자들에게 수수께끼와 같은 난해한 구절이었다. 그 이유는 “그는 나사렛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라는 표현이 구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우선 이 글에서 마태가 2:23절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한 선언을 했을 때 그가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아야 한다. 둘째로는 구약과 신약 본문을 비교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 길이의 한계상 2:23절의 *“Ναζωραῖος”*(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 연구는 여기서 생략한다. 그러나 이 본문에 대한 구약 예언과 성취에 대한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학자들의 두 가지 견해에 대해 소개하고 비교한 뒤 평가할 것이며 결론적으로 아마도 마태가 생각하고 있었다고 가장 가깝게 여겨지는 구약의 구절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

조지 프라부(George S. Prabhu)는 마태복음 2:23절이 비록 구약에 대한 정확한 인용은 아니지만 삼손의 탄생에 대한 선포 내리티브가 등장하는 사사기 13:5절을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⁴⁾ 그는 그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칠십인역(LXX) 사사기 13:5절의 “ὅτι ἡγιασμένους ναζιρῶν ἔσται τῷ θεῷ τὸ παιδάριον

14) George Prabhu, *The Formula Quotations*, p. 207-215.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 가야 할 내용은 키워드인 나실인(Nazirite)이 발견되는 구절은 사사기 13:5, 7, 16:17이며 이 구절들을 통해 나실인(nazir)이 절 소년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데, 이 나실인 혹은 “거룩한 자”(holy one)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 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바쳐진 자라는 뜻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ἐκ τῆς γαστρός”(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Nazarite)이 됨이라”를 인용하며 둘째로는 이러한 언급은 헬리어를 아는 당시의 독자들에게 즉시 그 뜻이 전달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⁵⁾ 이 견해를 따르는 또 다른 학자는 헐만 헨드릭스(Herman Hendrickx)인데 그도 구약 인용을 삼손 탄생 내리티브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둘째로 마태복음 1:21절의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야심이라 하니라”의 평행선상의 구절로 사사기 13:5b의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세째로 마태가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가 아마도 사사기를 의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⁶⁾ 이러한 견해는 다른 학자들도 받아들이고 있다.¹⁷⁾

다른 한편으로 잔 다니엘루(Jean Danielou)는 신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 *netser* (‘netser-가지’)로서 상징되는 다윗의 자손 메시야에 대한 암시적인 언급이라고 제안한다.¹⁸⁾ 그의 주장은 마태는 사사기 13:5절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11:1절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야 이심을 증명하려는 마태의 지속적인 의도와 부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고 하는 이유에서이다. 린다스(Lindars)

15) George Prabhu, *The Formula Quotations*, pp. 207-215.

16) Herman Hendrickx, *Infancy Narratives* (London: Geoffrey Chapman, 1975), p. 52.

17) 삼손 내리티브가 바로 마태가 의도하고 있는 구약의 내용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대한 견해를 알고자 하면 아래를 보라. H. H. Schaefer, ‘*Ναζαρεῖος*’, TDNT, IV, p. 878. 여기서 세이더는 마태가 헬리독자들에게 글을 쓰고 있으며 따라서 히브리어 단어를 조작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마태 2:23절은 사사기 13:5, 7, 16:17절에 나오는 삼손에 대한 언급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G. Allen의 *He Shall be Called - a Nazirite?*, Expository Times 95(1983), pp. 81-82.; U. Luz, *Matthew, A Commentary*, (Continental Commentary Seri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p. 149.

18) Jean Danielou, *The Infancy Narratives*; trans., Rosemary Sheed, (New York: Herder and Herder, 1968), pp. 89-91.

도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 린다스도 마태복음 2:23절은 예수의 메시야이심을 증명하는 컨텍스트 속에 있기에 이사야 11:1절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¹⁹⁾ 부루너(Bruner)는 그의 주장이 비록 가능성에 근거하고 있는 확실성이 결여된 주장이지만 그러나 린다스(Lindars)와 다니엘루(Danielou)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그는 주장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실 수 있으되 심지어 무명의(nobody)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이다.”²⁰⁾ 즉 다시 말해서, 말씀(Logos)이 육신이 되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표현하며 이것은 예수가 자란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로서 이곳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마을이라는 사실과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겸손과 낮아짐이야말로 브루너에 의하면 이사야 11:1절과 잘 맞으며 이것이 마태가 의도하는 구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다. 건드리(Gundry)도 마찬가지로 사사기 13:5, 7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²¹⁾ 오히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쿰란사본, 틸굼, 랍비전승 문서에서는 가지(Branch)야말로 멸시와 낮아지심에 대한 특별한 언급과 함께 메시야적인 해석으로 적용되어지는 내용이다.”²²⁾ 예수가 잡히던 날밤 여자하인이 베드로에 대해서 했던 말 중에 “나사렛 예수”(마태 26:71)²³⁾라고 한 표현은 경멸적인 태도가 담겨있고, 지상 사역

19) B. Lindars, *New Testament Apologetic*, pp. 195-196.

20) Frederick D. Bruner, *The Christbook: A Historical/Theological Comments*, Mt 1-12(Waco: Word Books, 1987), p. 62.

21) 건드리는 사사기 13:5, 7절이 구약의 암시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 3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1)빌음상의 어려움. 2)예언자들(prophets)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언급 결여, 그리고 3)마태의 모티프와의 연결성 결여. *Commentary*, p. 40.

22) Gundry, *Commentary*, p. 40.

23) 레온 모리스(Leon Morris)도 건드리는 주장에 동의한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타이틀은 경멸과 무시와 반대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예수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자라신 것과 연결됨으로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본다. Leon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92), p. 49.

기간 중 예수가 계속해서 받았던 반대와 거절이라는 주제의 측면에서 볼 때 건드리는(Gundry) 마태가 의도했던 것은 분명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가지(Branch)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마태 2:23절이 암시하고 있을 만한 제일 설득력있는 2가지 주장에 대해서 다루었다. 물론 두 주장 모두 약점들이 있으나 지면의 한계상 다루지 못하는 면도 있고 또한 두가지 주장 모두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두 주장 모두 서로 통합되어져 마태가 의도한 것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마태도 prophets(선지자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기 13:5절 보다는 이사야 11:1절에 우선권을 주고자 한다.²⁴⁾ 사사기 13:5절도 설득력이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사야 11:1절을 가지고 마태가 의도한 구약의 예언으로 취급하며 논지를 펼쳐 나가고자 한다.

구약 본문: 이사야 11:1 – 이새의 줄기에서 한 씩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칠십인역: 이사야 11:1 –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며(그의) 뿌리에서 꽃이 필 것이며

신약 본문: 마태복음 2:23 –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

Publishing Co., 1992), p. 49.

24) 샌더스(Sanders)는 물론 두 가지 주장 모두 인정하긴 하지만 오히려 사사기 13:5절을 우선권을 주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다. 왜냐면 마태복음을 받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칠십인경만 읽었었고 또한 가장 근접한 연결구절은 칠십인경의 사사기 13:5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주장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마태는 헬라인 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독자로서 마음에 두었다고 본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단어조작을 통한 Word play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독자들이었다. 레이몬드 브라운(Raymond Brown) 또한 두 가지 주장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

려 함이리라.

본문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차이점은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니라”라고 하는 예언이 구약 본문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것은 이사야서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통틀어도 마찬가지이다. 구약과 신약의 본문만 비교해 본다면 유사성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마태는 히브리어 단어의 자음(consonant)을 이용해 단어 플레이를(word-play) 하고 있다. 마태는 나사렛사람(*Nαζωραῖος*)이라는 명칭을 통해 이사야 11:1절의 “가지”(Branch)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가지”가 히브리어로 *נֶצֶר* (*netser*) 이기 때문이다. 헬라어의 ‘나조라 이오스’와 히브리어의 ‘네체르’ 사이에는 발음상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단어 플레이는 독자들이 셈족 언어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야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발음상 유사성 외에도 구약과 신약의 배경이 모두 메시야에 관한 내용도 동질성을 보여 준다. 건드리(Gundry)에 의하면 타고(*Targum*)과 합비 전승(rabbinical literature)을 통해 이사야 11:1절은 메시아적인 해석을 통해 이해되어 왔다.²⁵⁾ 이렇게 발음과 주제에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구절사이의 정확한 의미는 아직 더 찾아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 구약과 신약의 컨텍스트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예언과 성취의 관계가 드러날 것이다.

3.1. 구약 컨텍스트

25) Robert H. Gundry, *The Use of the Old Testament in St. Matthew's Gospel* (Leiden: E. J. Brill, 1967), p. 104.

메시야에 대한 주제가 이사야 8:19-9:7에서 이미 발견된다. 이 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기로 계획하고 계신다. “기묘자, 모사”(Wonderful Counselor)인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다.(9:6) 9:8-10:4에는 우선 북방 민족들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말씀이다. 즉 이스라엘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앗수르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할 관계는 앗수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다. 10:5-19절에는 앗수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보여준다. 10:20-34절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이스라엘에 남은 자(remnant)들을 남겨 두실 것이다. 앗수르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하나님께서지만 구원하실 때는 앗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견뎌 오실 것이다. 11:1-16절은 다시금 메시야에 대한 주제가 등장한다. 8장과 11장에 나오는 바로 그 메시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이 11장에 선포되고 있다. 그 이후 12장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이어져 있다. 이러한 흐름을 전체적으로 감안할 때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심판받을 앗수르 왕국과 결국 통치하게 될 다윗의 왕국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이며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야의 능력으로 다윗의 왕국은 영원히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클라이맥스에 이르게 되면서 절정에 다다르게 된다.²⁶⁾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11:1절 이후에 나오는 메시야에 포커스를 추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26) John N. Oswalt, *NICOT; The Book of Isaiah Ch. 1-39*(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86), p. 250.

3.2. 신약의 컨텍스트

마태복음 1장은 죽보와 탄생에 대한 기록을 통해 예수의 시작을 소개하고 있다. 2장은 박사들의 방문과 이집트로의 탈출, 베들레헴에서의 아기 학살 사건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기록을 통해서 모든 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이루어진 메시야 예수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마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다른 방식이 아닌 지형적인 중요성(geographical significance)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²⁷⁾ 다시 말해서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그리고 이집트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옮겨갔던 것이다. 이 여정 자체가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아들”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여정에 포커스하고 있음으로 또한 모세의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예수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새로운 모세,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²⁸⁾ 본문 2:23절은 2:19-23절에 기록된 예수의 유년기 내러티브(Infancy Narrative)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그 내용은 이집트 피난살이에서 돌아오는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요셉과 그 가족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밝히고 있다.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어떻게 그가 오실 메시야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2장

27) Bruner, *Christbook*, p. 57.

28) 신약의 배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이었는지 대해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부루너는 한 사람(the man), 즉 이스라엘의 대표자, 인류의 대표자라고 설명한다. 레이몬드 브라운(Raymond Brown)은 예수가 새로운 모세이며 이 모든 사건이 새로운 출애굽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견드리(Gundry)는 이 모든 컨텍스트를 하나님의 아들됨(divine sonship)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그러나 모든 주장들의 공통점으로 마태가 믿고 있고 주장하려고 하는 점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야이며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의 앞 뒤 문맥과 컨텍스트를 살펴 볼 때 내용의 핵심은 그 뒤에 나올 내용, 즉 어떻게 예수가 메시야 이신 가를 유대인과 세계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에 대한 서언(prolegomena)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3.3. 해석학적 원리와 성격 분석

마태가 예수를 메시야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라는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때 그러한 표현은 과연 어떤 의미에서 한 것인가? 마태는 이사야 11:1절을 그 컨텍스트안에서 암시하고 있으나 약간의 변형을 주고 있다. 프랑스(France)에 의하면 예수는 구약의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해 왔던 메시야였으나 그 메시야를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 11:1절은 메시야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통치자이며 이 메시야라는 인물에 대한 내용은 이사야 9:6-7과 16:5에서 나오는대로 모두 다윗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²⁹⁾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실 메시야는 영광과 존귀가 넘치는 왕과 같은 존재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태복음 2:23절의 컨텍스트에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은 숨겨진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조그마한 동네였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메시야를 인식할 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이야 말로 마태가 생각했던 바로 그 포인트였다. 마태가 11:1절을 사용함으로써 메시야의 낮아짐과 무명의 시골 출신이라는 점이 이사야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일치하게 된 것이다.³⁰⁾ 모든 랍비 문학과 탈굼(targum)과 쿰란 커뮤니티도 이사야

29) R. T. France, *Jesus and the Old Testament*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71), p. 87.

30) Gundry, *The Use of OT*, p. 226.

11:1절의 נזֶר(*netser*)를 매우 중요한 메시야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해왔고 또한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도 비록 조금 다른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메시야에 대한 지칭으로 “가지” 혹은 “싹”과 비슷한 용어들을 언급하고 있다.³¹⁾ 그러나 랍비 문학과 탈굼(targum)과 쿰란 커뮤니티의 “가지”에 대한 해석은 특별히 무시함을 받는 비천함(despised lowliness)에 대한 뜻으로 묘사되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³²⁾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야를 그의 백성들이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주제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의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음과(obscurity) 맞아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³³⁾ 따라서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마태가 선지자들(prophets)[복수임에 주의하라]이라고 했을 때 그가 구약의 어느 한 구절을 인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 전체가 예언하려고 했던 메시야에 대한 중심적인 핵심, 즉, 나사렛이라고 하는 비천하고 무명의 배경을 가진 그리고 멀 시받고 천대 받는 메시야라고 하는 주제를 암시(allude)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기법이 정당성을 여기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2:23장은 사실 이사야 11장 전체를 암시하고 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가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로부터 수치와 멸시를 받고 있음을 주제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사야 11:1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해서만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 전체가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삶을 통해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31) 예레미야 23:5; 33:15; 스가랴 3:8; 6:12절을 참조하여 보라. Donald A. Hagner, *WBC: Matthew 1-13* (Dallas: Word Books, 1993), p. 41.

32) Gundry, *The Use of OT*, p. 104. 이사야 14:19절의 “like a rejected branch” 와 같은 표현에서도 드러난다.

33) 마태복음 26:71절에도 베드로에게 여자가 한 말을 통해서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비천함을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다. 물론 공생애 마지막 절정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간의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 궁극적인 면에서 예수의 낫아지심과 멸시와 천대와 벼랑당하심이 가장 잘 증명되고 드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다윗의 자손, 구약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새로운 그리고 진실 된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나타난 겸손하신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게 된 것이다. 교만하고 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구인 앗수르와 바빌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남은 자(remnant)들, 즉 참된 이스라엘(a true Israel)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참된 이스라엘(The true Israel)이신 메시야, 다윗의 자손에 대한 성취는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 비천하고 무명의 멸시의 대상이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자라나심을 통해 성취되었다.

예수는 역사의 목적이며 성경의 예언과 성취라는 자물쇠를 푸는 열쇠이다. 예수는 새 아담, 새 모세, 새로운 이스라엘로 순종과 겸손을 통해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다. 그의 천대, 멸시, 그리고 낫아지심이라고 하는 삶의 주제가 그의 백성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에 수혈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 즉 겸손과 낫아짐으로 임해야 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것이요”(마태복음 5:3) 그러므로 이사야 11:1절의 예언은 본질적으로(in essence) 이미 성취된 것이나 아직 완전히(in totality) 이루어 진 것은 아님이 드러난다. 왜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까지 예수의 성품(character)를 품고 살고 드러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4. 결론

마태의 주요 목적은 그의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가 메시야임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즉 예수 그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이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는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의 탄생과 성장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보여준다. 마태는 구약의 컨텍스트에 충실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써 온 세계의 통치자로서 그러나 비천한 배경과 멸시받는 삶과 겸손의 성품으로 임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예수의 탄생과 성장을 통해 확실히 증거하고 있다.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되 이 역사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부분적 과거론’과 ‘이상주의’ 비교

How to Read the Book of Revelation?: Comparison between the Partial Preterism and the Idealism

송영복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 차

1. 들어가면서 ■ 68
2. 부분적 과거론적 해석 ■ 68
 - 2.1. David Chilton ■ 69
 - 2.2. James B. Jordan ■ 72
 - 2.3. Kenneth Gentry ■ 75
 - 2.4. Keith A. Mathison ■ 78
3. 이상주의적 해석 ■ 81
 - 3.1. William Hendriksen ■ 82
 - 3.2. Grant R. Osborne ■ 85
 - 3.3. Simon J. Kistemaker ■ 88
 - 3.4. Dennis E. Johnson ■ 91
4. 이 두 해석 방법의 유사점 ■ 94
5. 이 두 해석 방법의 차이점 ■ 95
6. 나오면서 ■ 97